

**특집 : 신음하는 채란양계...그 돌파구를 찾는다**

# 채란양계 불황타개 방안

**황 차 성**  
(삼일농장 영업부장)

새벽 닭 울음소리와 함께 신유년의 새 아침은 밝았건만 아직도 불황의 늪은 깊어만 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지난 긴긴 불황의 한 해를 보내고 또 한해를 맞이하는 양계업, 지나간 불황요인 분석을 하여 대책과 묘안을 세워야겠다.

개략적인 불황의 요인은 간단하다.

이 불황의 요인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이로써 고유가(高油價) 시대에 높은 곡물가격에 기인하여 생산원자재 값은 나날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비하여 생산물 가격은 경기침체로 인한 절대적인 소비 위축의 장기화로 작금에 이르고 있다고 하겠다.

## 원료가의 대폭인상

근본적인 채란업 불황은 양계 생산물 생산비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배합사료 가격의 폭등을 말할 수 있겠으며 아직도 사료 가격은 여름철 뭉게구름 형태처럼 두렵기만 하다. 언제 얼마만큼 인상시킬런지 알 수가

없다. 지난 '80년도 배합사료 가격이 몇 차례에 걸쳐 평균 70% 이상을 인상했다는 사실은 한국양계 역사상 새로운 기록을 세웠으며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한꺼번에 미루어 대폭 인상해 버렸기 때문에 크나큰 쇼크를 주었고 양축업자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를 택하여 인상했기 때문에 양축가의 생산기반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요 원료의 인상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 옥수수 가격이 지난 연말 10\$ 인상으로 인하여 지난 연초 가격에 비하면(환율인상 포함) 그의 100%가 인상 되었다. (년초 공급 가격 135\$×485원=65,475원 현재 공급가격 195\$×670원=13,650원)

지금은 또 달라지고 있다. 국제 현물 시장에서는 220\$~230\$로 거래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사료공장 측근으로 부터 흘러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소맥피가 1차에 58%나 인상되어 kg당 42원으로, 동물성 단백질 주원료인 어분(수입어분 기준)은 kg당 500원대로 상승하고 보면 사람이 먹는 영양제 값과 거의 맞먹는 셈이니 그저 어리둥절 할 뿐이다.

또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축약품의 인상과 기구비품의 인상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양계 생산물 가격이 구조적으로 원가 상승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계란생산 원가가 상승하므로 해서 공급가격에 대한 수요 현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생산비가 오른만큼 시장 판매가격을 적용한다면 판매물량은 필히 수요감퇴가 따른다는 것은 경제의 원리다.

### 초생추 입추현황과 채란계의 적정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란용 병아리 입식현황은 '78년도 17,413千首 '79년도 18,232千首 '80년도 16,340千首(11,12월 추정치 가산)인데 '80년도 입식수수는 '79년 보다는 분명히 적은 규모로 입식되어 입추조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육추용 배합사료 생산 실적면에서 검토해 보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79년도 말 축산진흥회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채란계 수수는 30,890千首로 나타나 있다. 배합사료 산란용 생산 실적은 1,141M/T로 생산되었으며 '80년도 산란용 생산실적이 1,126千M/T과 비교해 보면 '79년 대비 '80년도 생산량은 1.3%의 생산 감소를 가져왔으며 육추용 배합 사료는 '79년도 생산실적이 330,229 M/T, '80년도 생산실적이 294,901M/T이다.

'80년도 육추용 사료생산 실적을 '79년 생산 실적과 비교하면 10.7%의 생산감소를 가져왔다. 산란용과 육추용 사료생산 실적에서 분석해 보면 병아리 입추문제 보다는 강제환

우에 더욱 신경을 많이 썼다고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으며 산란용 배합사료 생산량 15% 내외의 감소에 따른 적정수준의 산란계가 유지되어야만 생산비 이상의 계란가격 유지가 될 것 같다.

### 배합사료 생산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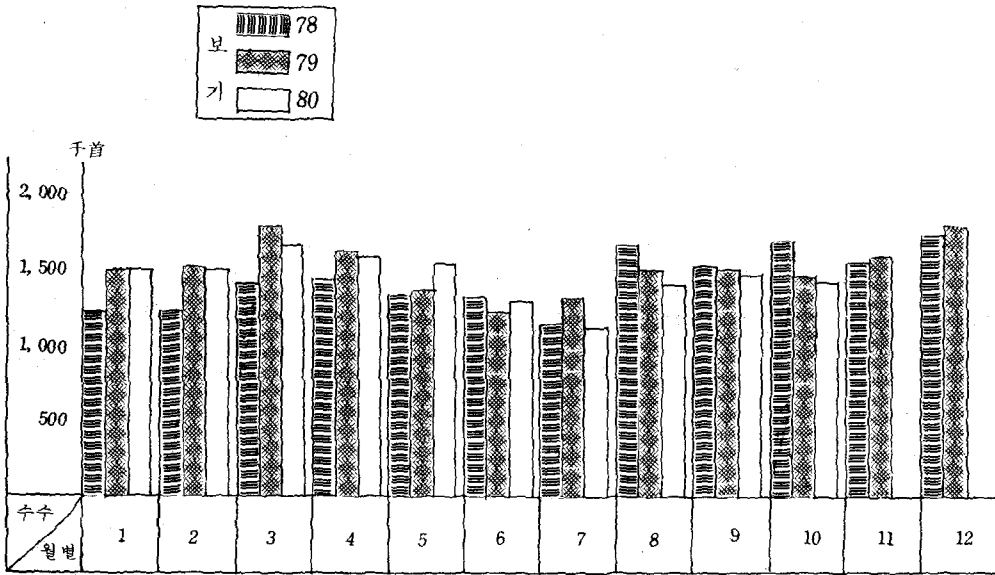
그림 2에서 보는 바와같이 '79년도와 비교해서 분석해 보면 '80년도 초생추 입추 현상은 앞서 얘기한 데로 크게 조절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채란계는 무엇 보다도 강제환우를 많이 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겠다.

'80년도 부문별 배합사료 생산량을 '79년도와 비교해 보면 전체 축산업의 종축별 불황과 호황을 바로 메타로 짚 수 있을 것 같다. '80년도 배합사료 생산실적이 '79년도에 비교해서 평균 20% 이상 감소된 부문은 그런데로 재미(호황?)를 봤다고 해도 좋겠다. 지금도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양돈부문과 육계 부문은 뚜렷하게 생산조절이 되었기 때문에 배합사료 생산량 감소와 함께 생산물 가격은 그런데로 생산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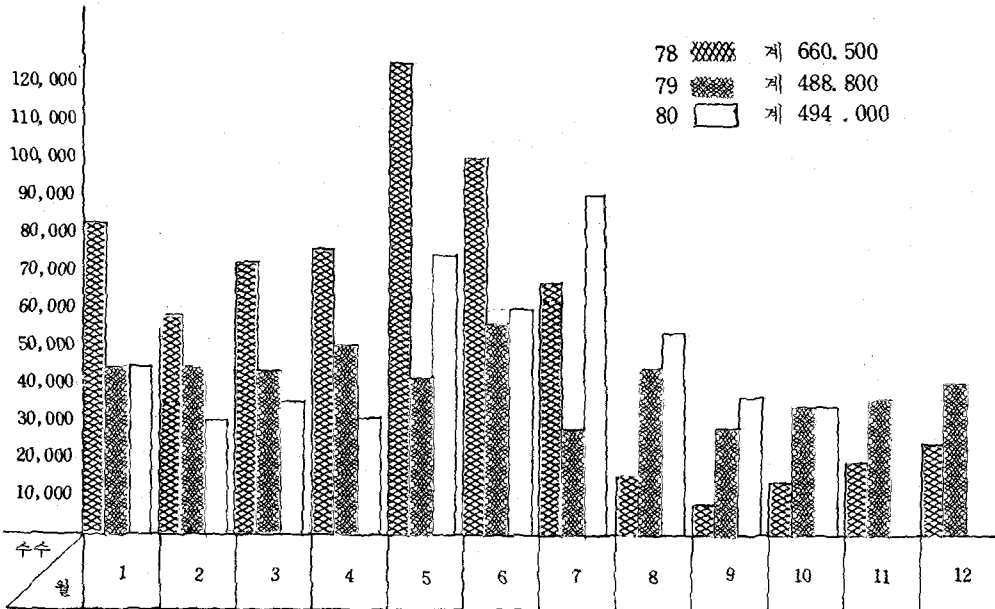
채란계에 있어서 특히 '80년도 후반기부터 생산성 저해를 가져오는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었다.

몇 차례에 걸쳐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사료배합 비율 조정때문에 따른 스트레스, 도입 육수수 변질분 사용으로 곰팡이류의 독소 등으로 폐사 및 산란저하를 초래하였고, 요즈음 유행어처럼 쓰고있는 E. D. S '76(산란저하 증후군) 감염에 의한 산란율 저하, 무기물과 비타민류의 결핍증에 의한 산란저하, 고단백 어분의 품귀현상으로 저질어분 사용으로 인한 염중독증에 의한 산란율 저하, 심심함게 발

그림 연간 월별 초생주 인후현황



산란용 종계 입식현황 (80. 10. 31)



병되는 마렵, 백혈병과 지방간에 의한 생산성 저하, 양계장의 고질병인 복합형 호흡기병과 전염성 기관지염에 의한 산란율 저하, 강제환우로 인한 생산성 저하,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설과 장기간의 혹한에 의한 산란율저하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예년에 비하여 더욱 생산성을 낮게 만들었으나 계란가격은 계속 30원대에 머물고 있으니 근본적으로 생산 조절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다. 노계의 과감한 도태가 따르지 않는 한 (특히 환우계의 도태를 강조함) 채란업은 빠른 시일 안에 생산비 이상의 가격 유지가 어려울 것 같다.

### 계란 가격 변동

지난 몇 년간 계란의 절대가격은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면서도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79년 대란평균가격(10개)은 257원 '80년도 대란평균가격(10개)은 328원으로 전년대비 27.6%가 상승되었으나 사료가격은 배합사료 산란용이 무려 70%에 가깝게 인상되었으니 생산비 폭이 더욱 커 과히 짐작할만 하다.

현재의 계란생산 원가는 대란 기준으로 47원~50원 선으로 생산비를 계산하는데 현재의 계란 시세는 어떨까.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희소가치를 만드는 길 밖에 없으니 조절된 적정수의 입추와 과감한 노계도태만이 생산비 이상을 보장받는 길일 것이다.

### 누가 계란을 찾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서서히 봄을 일어나기 시작한 「퀵터키 후라이드 치킨」 지금은 최고의 절정을 이루어 서울시 전역에만 해도 약 1250여군데나 산재해 있으며 그런데로 재미를 보고 있다고 한다. 이 「퀵터키 후라이드 치킨」 이야말로 통닭 유통시대에서 부분육의 시대

로 새로운 부로일러 소비처를 개척한 것이기에 부로일러 사육자에게 여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유통가 상가 주택가 아파트단지 공단지대 가릴것 없이 골목골목마다 닭그림과 함께 이상스럽게 쓴 원어의 간판이 붙어 있다. 이것이야 말로 육계 불황을 극복하는 결정적인 돌파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같이 계란도 적극적인 소비촉진 방안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누가 계란을 가져가겠지. 사먹겠지 하는 안일한 방관적 태도에서 빨리 깨어나야겠다.

소비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미네랄성분 계란생산, 미네랄 오일코팅에 의한 상품의 고급화, 계란포장의 다양화, 중간 마진을 배제한 지역 단위별 직판매장 개설운영 계란 가공품의 연구, 또한 계절적인 수요의 편차를 줄이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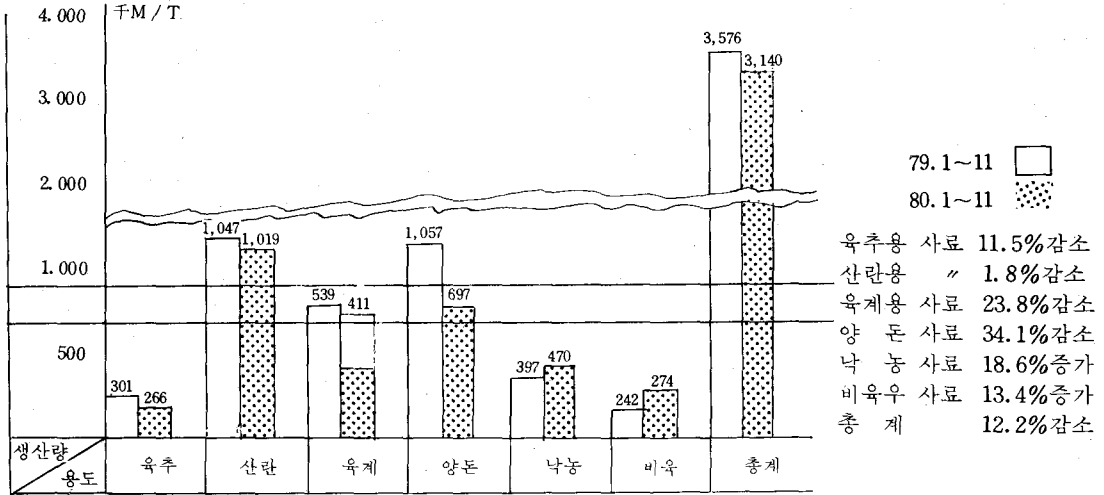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만큼 가끔 어족이 풍성하여 고깃배가 만선의 깃을 달면 계란의 소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량 소비처를 돌파구를 찾던 중 다행스럽게도 한국사료협회에서 국군장병 위문품으로 1억원 상당의 계란으로 전군 납품을 하게 되었으며 사단법인 대한양계 협회가 주관 하여 대란기준으로 2,500,000개를 수집하여 구정에 납품한다고 하니 얼마나 획기적인 일인가.

### 계란값 상승은 2월 이후

축산업도 이제는 주폭 생산과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강조되어 온 바와같이 이제 축협중앙회가 정식으로 출범되었으니 양축가를 위한 정책입안과 함께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 양축가와 보다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 지리라고 믿어진다.

그림 2. 배합사료 생산실적



구정(2월 5일)을 기점으로 하여 초, 중, 고등학교의 개학과 더불어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와(2월 15일) 대통령 선거(2월 25일) 연이어 3월의 국회의원 선거등 계란 소비에 영향을 미칠 호재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으니 꽤 다행스럽기만 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한 사실은 노계가 상당히 도태되고 있다는 반가운 사실과 함께 계란 재고도 그런데로 출하되고 있다고 하니 계란 가격상승 문제는 다만 시간문제처럼 느껴지지만 생산비 이상의 가격유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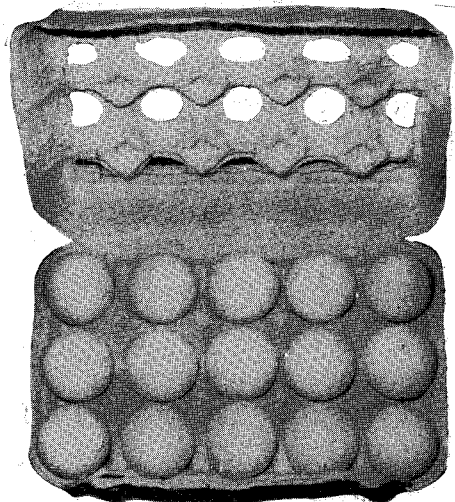
# 위생적인 계란보관은 종이난좌로

15개들이 종이난좌 신개발!!  
(파란 방지에 큰 효과)

- ① 겨울철 동파방지에 큰 효과
- ② 30개들이 완란·종란용 난좌 및 보통용난좌

## 규격 종이난좌는

1. 신선도 유지
2. 부화율 향상
3. 질병 예방
4. 파란 방지



80년대는 과학적인 경영시대

## 한국성형제지공업사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98-1 (전화) 고등우체국 77번